

영광군수, 모시떡 전시체험 판매장 방문

불갑면 모악리 위치...먹고 체험하고 구매 가능 "5월부터 본격 체험...소득 증대·농촌활력 기대"

영광군은 불갑면 모악리에 위치한 모시 떡류를 보고, 먹고,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영광모시떡 전시·체험 판매장을(이하 전시·체험장) 방문하였다.

전시·체험장은 지역 특산품인 영광 모시떡의 역사와 다양한 모시떡을 소개하는 전시·관매장과 모시떡을 생산하는 생산실, 방문객들이 모시떡 송편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에는 영광 모시떡의 캐릭터(모시몽)와 떡방아를 짚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한다.

전시·체험장 관계자는 "5월부터 모시떡 체험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 모시떡 전시·체험 판매장 개장으로 불갑관광단지 및 연계한 지역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으로 2년 동안 11억원 사업비로 지역특산자원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상품 생산기반 조성, 전시·체험장 조성,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서희연기자

목포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만큼 수수료 부담 추진한다

전자태그 방식...관리주체 있는 300세대 이상 대상



목포시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만큼 수수료 부담하는 RFID 설치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버릴 때 위생적이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

올해 시는 20대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에 RFID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관리주체가 있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이달 31일까지 목포시청 자원순환과(트윈스타 4층)에 방문 또는 우편(목포시 수문로 32, 4층)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배출 방식을 세대별 배출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RFID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RFID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무게로 측정하는 전자태그 방식이다. RFID는 배출 때마다 개인 전용 카드로 인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발생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접수 후 장비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관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며, 올해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종량제봉투(75L)를 지원한다.

또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등을 보완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RFID 장비 설치가 폐쇄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장비 배출구가 자동 개폐돼

목포=박정수기자

무안군, '상가 경쟁력 강화' 상인대학 운영

12일까지 참가자 모집

도시재생 활성화 기대

무안군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통한 상인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상인대학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오는 1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상인대학은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상인 마인드 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와 도시재생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상인대학 참가자들은 상권분석을 통한 소비패턴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상가 경쟁력 강화와 매출증대 방안을 모색하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발굴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 청년 등 상인대학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무안읍 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우선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무안읍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신청·접수

지역인재 장학생 신설...총 5개 분야 300명 내외 선발

함평군이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2021년도 인재양성기금 장학생(상반기)을 신청·접수한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장학 사업을 주관하는 함평군인재양성추진위원회는 최근 이상의 위원장(군수) 주재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장학생 선발 요강을 확정했다.

올해 군은 성적우수 장학(고등학교 신입생·대학생), 복지장학(고등학생), 특기자 장학(고등학생·대학생) 등 총 5개 분야에 15억 6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수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지역인재(대학생) 장학금을 신설, 기존 130명 규모의 총 선발인원을 500명 내외 수준까지 대폭 늘렸다.

1인당 최대 지원 장학금(지역인재)도 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600만 원(반기별 선발액 300만 원),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은 연간 500만 원(반기별 선발액 2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총 장학금 지급 규모 역시 기존 대비 10배 이상 커졌다.

올해 장학금 신청대상은 품행이 모범적이고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각 분야별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관내 고등학생·대학생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지원신청서, 추천서(학교장·읍면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함평군 각 읍·면사무소나 소속 고등학교(재학생)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학생 전형은 부모 모두 또는 실질적인 보호자도 해당 분야의 필수 거주기간으로부터 선발 공고일 현재(21.3.8.)까지 함평군에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지역인재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은 올해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먼저 신청(최종 선발여부 무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각 분야에 따라 선발전원, 지원 자격, 선발기준 등이 서로 상이한 만큼 함평군정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며, "최종 선발자는 내달 28일 이후 함평군인재양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하고 5월 중 실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무안군, '백향과' 틈새 소득 작물로 육성

무안군은 여름과 겨울철 2기작으로 수확이 가능한 백향과를 틈새 소득 작물로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열대 과수인 백향과는 최근 고소득 작물로 주목을 받는 작물이다. 백가지 향이 난다고 하여 백향과라고 불리며, 석류보다 3배 풍부한 비타민C와 식이 섬유, 니아신, 엽산 등이 함유되어 피로 회복과 미용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항암작용, 임산부에게도 좋은 과일이다.

운남면에서 백향과를 재배하는 이규동 씨는 "2019년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조성사업"으로 무안군에서 4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난방기와 다경보온커튼 시설을 갖추어



0.3ha(7동)의 시설하우스에서 백향과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3톤을 수확해 3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백향과 재배는 5년째이며 올해는 5톤의 수확을 예상하고 있다.

영암군, 맞춤형 통계컨설팅 설명회

호남지방통계청과 영암군 공동협력 사업추진

영암군은 지난 3월 8일 본청 남산실에서 박종필 부군수와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과 호남지방통계청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영암군 맞춤형 통계컨설팅'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앞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게 되는 영암군 맞춤형 통계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 맞춤형 통계컨설팅 사업은 호남지방통계청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계기반 지역정책 추진을 위하여 통계청의 기술적 자문으로 통계인식 및 통계수요파악, 통계분석 등을 통한 영암군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통계 발굴을 위한 공동협

력사업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맞춤형 통계컨설팅을 통하여 영암군의 전반적인 지역통계 현황 및 통계인프라 진단 등 환경진단과, 기관장 및 간부, 정책담당 등 인터뷰, 전직원 설문조사, 실무회의 등을 통해 지역정책과 연계한 통계수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역특화 통계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을 하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맞춤형 통계컨설팅을 통하여 영암군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특화통계를 발굴하여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한 정책수립 및 시행으로 통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영암군 자체통계개발의 기틀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